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과 벤처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자랑 대덕연구단지가 30세 장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덕연구단지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입니다. 빈약한 자원에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DRAM 개발, 한국표준형 원전 설계, 우주항공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놀라운 연구개발 성과 등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두뇌를 양성하는 산실로서, 또 전국의 연구개발 인재를 흡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집적지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대덕연구단지는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대전광역시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도시로서 명성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과학기술인과 벤처기업인, 그리고 이를 지원해

온 대전시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30여년 전 우리는 과학기술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연구개발 투자와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 없이 2만 달러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룩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과학기술의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어 온 대덕단지야 이제는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선도자가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함께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핵심동력은 '지방화'입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진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해서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고루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곳 대전도 탄탄한 연구개발 자원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내고, 대덕단지 또한 세계적인 R&D형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 기업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의 우수 연구소와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필

요하다면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육성에 필요한 법률과 추진체제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시민과 과학기술계 인사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에게 기회를 줍니다. 참여정부에 주어진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중심사회 실현' 과 '국가균형발전' 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역사의 소명에 충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혜택도 가장 크게 받을 곳이 대전·충청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대덕의 불빛이 밤을 밝힐 때 대전·충청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며, 우리의 2만 달러 시대도 환하게 밝아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과학기술 중심사회,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대덕연구단지 30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